

2019년 11월 3일

시편 119편 137-144

- 137 주님, 주님은 의로우시고,
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.
- 138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,
참으로 진실하십니다.
- 139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,
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.
- 140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하므로,
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.
- 141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,
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.
- 142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,
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.
- 143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,
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.
- 144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,
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주십시오.

제가 늦게 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
오, 아주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여.
주께서 부르시고 제 방어막을 뚫으셨으니
지금 제가 주를 갈망합니다.
주의 향기를 제게 불어넣으사
제가 그 향기를 들이마시니,
지금 제가 주를 갈망합니다.
제가 주를 맛보았으니,
지금 제가 주를 갈망합니다.
주께서 저를 만지셨으니
저는 주의 평안을 애타게 기다립니다.

어거스틴(St. Augustine of Hippo, 354-430)

1. 알레프(Aleph, 1-8)

“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(ashrey).”

시편 1장의 토라의 가르침에 대한 만족 언급

고난 가운데 소망과 복된 삶을 찬양

2. 벳(Beth, 9-16)

“젊은이가 어떻게 해야(bameh)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?”

답은 “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, 그 길뿐입니다.”

매우 뛰어난 지혜 교사로서의 하나님

3. 김멜(Gimel, 17-24)

“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(gimol) 주십시오.”

토라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깊은 통찰력과 구원을 위한 기도

4. 달렛(Daleth, 25-32)

“내 영혼이 진토에서 텅구니(davqah)”

고통가운데에서도 살아갈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임을 강조(25,28)

5. 헤(He, 33-40)

“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(horeni) 주십시오.”

간구 (~하게 하소서) - 구원에 대한 기도

도덕적·물질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강조

6. 와우(Waw, 41-48)

“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(도(and), wi) 베풀어 주십시오.”

이전 연에 대한 답변처럼 제시

7. 자인(Zain, 49-56)

“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(zikhor) 주십시오.”

“기억하다”가 반복

“기억하다”는 구약에서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는 단어

8. 체트(cheth, 57-64)

“주님은 나의 분깃(cheliqi)”입니다.

분깃(heleq) -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한 땅

하나님의 인자하심(hesed)로 끝을 맺음

9. 테트(Teth, 65-72)

“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(tob) 대해 주셨습니다.”

하나님의 선하심(tob)이 여섯 번 등장

10. 요드(Yod, 73-80)

“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(yadey)”

하나님께 개인의 삶 속에서 창조적인 사역을 완수해 주시기를 간구

11. 카프(Kaph, 81-88)

“내 영혼이 지치도록(kala)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여,”

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요청

12. 라멧(Lamed, 89-96)

“주님의 말씀은 영원히(liolam, for ever),” 전치사로 사용

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세우시고,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굳건히 서있다. 하나님의 가르침은 시편가자에게 생명을 주며 고난의 시기에 희망을 붙여넣는다.

영속적인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징

13. 멤(Mem, 97-104)

“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(mah) 사랑하는지”

진정한 지혜의 근원으로서의 토라를 묵상하고 찬양

하나님은 그의 토라를 통해 가르치는 지혜 교사

토라는 일생 동안 토론하며 진리를 찾아야하는 중요한 문서

14. 눈(Nun, 105-112)

“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(ner), 내 길의 빛입니다.”

토라에 대한 찬양으로 충만한 단락

15. 싸멕(Samek, 113-120)

“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(seyef)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.”

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단락 (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. 119)

16. 아인(Ain, 121-128)

“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(asah)”

주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과 토라의 가르침

17. 페(Pe, 129-136)

“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(pala),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.”

토라에 대한 감사(129-131 절)와 토라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(136절)에 대한 주제로 되 돌아온다. 이 주제는 132-135절의 기도의 뼈대이며,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이중의 적, 도덕적 죄악과 인간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한다.

18. 짜데(Tzaade, 137-144)

“주님은 의로우시고(sadiq), 주님의 판단은 옳바르십니다.”

주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있는 단락

신앙인의 다른 삶은 토라에 대한 이해의 성숙과 관련됨

19. 코프(Qoph, 145-152)

“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(qura), 주님,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.”
계명과 증거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

20. 레쉬(Resh, 153-160)

“나를 건져주십시오(raah)”
“나를 살려주십시오”의 세 번 반복 (154,156, 169)
고난받는 자들에게 토라의 본질은 위로와 소망

21. 신/쉰(Sin/shin, 161-168)

“권력자(sarim)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,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
말씀뿐입니다.”
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신실함의 의무

22. 타우(Taw, 169-176)

“주님, 나의 부르짖음(tigrav)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시고”
토라에 대한 통찰력에 대한 간구
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소망